제6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 작품 소개

이 글은 당 협회가 '90년도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6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2,894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가작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이번호에는 가작 4편을 소개하며 잔여가작,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저 한다. (편집자 註)

가작

우유한잔 드시지요.

공주 봉황국민학교
6학년 김 우 진

겨울을 예고하듯 음산했던 지난 일요일 우리아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댁, 고모댁 가족들 모두 우리집으로 나들이를 왔다.

"에그 추워! 날씨가 왜 이렇담."

방으로 들어서며 모두들 춥다는 인사뿐였다.

그때 엄마께서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따끈한 우유한잔 드세요."

하시면서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것까지 내오셨다.

"어? 형수님 웬 우유예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조금은 놀라시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셨다.

"우유가 얼마나 영양가있는 보약인줄 모르셨어요?"

하시며 엄마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게 아니라요. 우유는 아이들이나 먹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우유한잔 하시지요.'라는 말은 좀 생송하군요."

삼촌께서는 언제나 시끌시끌 말씀도 푸짐하게 잘 하신다.

나도 어른들 틈에 끼여 우유를 마시면서 외사촌 동생 아림이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진이 넌 뭘 먹어서 그렇게 건강해졌니? 병원에 있을땐 너무 야위여서 걱정했는데……."

작은 고모는 통통하게 살이오른 내볼을 살짝 튕기며 흐뭇해하셨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개구장이 동생 종민이가 끼어 들었다.

"이 집은 우유소리 뿐이네."

큰 고모께서 의아스러운 듯이 우리 식구들을 둘러보셨다.

그때 아빠께서는

"너희도 알다시피 우진이가 입원했을 때는 얼마나 야위있었니? 그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였단다."

하시며 건강에 넘치는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계속 싱글벙글이셨다.

아빠 말씀을 들으신 작은 엄마께서는

"우리집도 이젠 '우유 한잔하시지요' 예요."

하시며 삼촌을 바라보셨고

"자! 아림이도 원표도 우유가 좋은 거라고 들었지?"

고모도 함께 맞장구치듯 말씀하셨다.

언제든 우리집에 오신 모든 사람들은 "우유한잔 하시지요."

라는 세련미 넘치는 엄마 목소리와 함께 우유대접을 받으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우리가족 뿐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영양우유를 먹고 건강한 몸이 되어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늘 저녁시간에도 엄마께서 정성스레 가져오실 영양우유가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영양우유 한잔 하시지요."

창문으로 비치는 밤하늘에 꽃별들도 우리모두에게 외치는 것 같았다.

가작

나는 우유 대장

충북 음성 원남면 원남국민학교
3학년 반 정 숙

"우유 대장! 얼른 학교 가야지."

우리 엄마는 오늘도 나를 우유 대장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유 대장이라는 내 별명을 들어야만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부터입니다.

우리 엄마는 6남매를 낳으셨는데 내가 넷째로 태어났고 바로 밑의 동생이 나랑 한 살 차이라서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

다. 그런 탓인지.어려서부터 우유를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엔 간식 시간이면 꼭 우유가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우유를 못 먹는다고 내게 주어서 다 먹어 치웠더니 우유를 잘 먹는다고 유치원 선생님께선,

"정숙이는 우유 대장이라고 해야겠구나."

하시며, '우유 대장'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학교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까지도 나를 우유 대장이라 불렀습니다.

2학년 때 사회 공부시간에 우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유는 젖소에서 짠 것이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막 달려와서 어머니께 젖소 한 마리만 키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시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우리 집이 젖소를 사서 동네 애들에게 자랑하며 떠들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란걸 알고는 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내 꿈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젖소를 키운다면 내가 좋아 하는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또, 공부가 끝나서 집으로 와 보니 우리 집 외양간에 예쁘게 생긴 얼룩이 송아지가 한 마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 보았더니 내가 하도 졸라서 송아지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뛸듯이 기뻐 어머니께 '고맙습니다'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에게 다가가서 송아지를 쓰다듬어 주고 앞으로 나와 친한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송아지도 내 마음을 알았다는 듯 큰 두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얼마나 기뻤는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 내 친구 송아지를 생각하며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피터팬의 여자 친구인 '앤디'의 이름을 따서 '앤디'라고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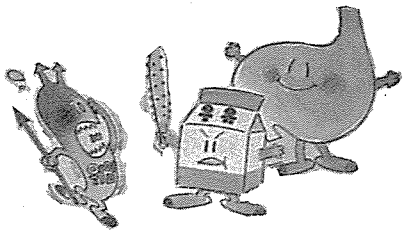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양간에 있는 앤디가 밤새 잘 있었는지 살펴보고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외양간의 앤디를 살피러 가곤 합니다. 이런 나의 정성 때문인지 앤디는 무럭무럭 자라 이젠 어미 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젖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키운 젖소에서 짠 우유는 더욱 맛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께선 다음 달에 젖소 한 마리를 더 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6남매가 모두 유유를 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꿈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젖소를 키우고 부터는 내 꿈이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큰 '우유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나는 우유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앤디야, 무럭무럭 자라거라."

하고 나는 마음 속으로 빌어봅니다.



기선

우유 배달부

마산시 상남국민학교
3학년 2반 김 미 정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집의 초인종이 울린다.

'띵똥.' '띵똥.' 소리와 함께 대문앞 주머니에 6개의 우유가 담기면 어느새 배달부는 골목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우유당번이라 우유를 들고 문안 인사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까지 모두 우유를 돌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마신다.

우유는 우리건강에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고, 예뻐진다고 어머니께서 틈만 나시면 물대신 우유를 간식으로 자주 주신다.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때의 일이다.

매일 하루도 걸르지 않고 우유를 배달해 주는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서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으로 아무도 몰래 장갑과 양말을 사서 포장해 두었다.

창밖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 찬란한 불빛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반짝 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캐롤송을 듣다가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어느새 크리스마스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새벽 5시였다.

잠을 자면 선물을 전하지 못할까봐 옷을 갈아입고 책상앞에 앉아 캐롤송을 들으며 6시를 기다렸다.

졸음을 참고 책을 읽다 보니 6시가 다 되었다.

얼른 선물을 들고 식구들 몰래 대문밖으로 나가 보았다.

6시가 넘은 것 같은데 우유 배달부 아저씨는 오시지 않고 골목에는 겨울 찬바람만 심술을 내며 쌩쌩 불어오고 있었다.

갑자기 화가 났다.

추워서 손도 시리고 발도 맨발로 운동화를 신고 나와 더 춥게 느껴졌다.

'착한 일을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 참 속상해.'

자꾸만 샘통이 났다.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선물을 서랍 아랫쪽에 다시 넣었다.

아침을 먹고 어머니와 함께 거리 구경을 하러 나갔다.

자선남비의 종소리가 거리 이곳, 저곳에서 아름답게 울렸다.

조그만 꼬마가 100원을 넣었다.

순간 나는 얼른 호주머니에서 잔돈을 모두 꺼내 자선남비에 넣고, 어머니께서 사주신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께서는 옷을 갈아 입으시고 우유 6개를 쟁반에 담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셨다.

'어머니께서 또 우유 사오셨나?'

궁금하기도 했다.

"어머니, 우유 사오셨어요?"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아니, 어제 점심녁에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다시 오셔서 우유를 주고 가셨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무 내 생각만 한 나 자신히 부끄럽기도 하였다.

오늘은 모두가 다 쉬는 크리스마스날인데도 하루도 빠짐이 없는 아저씨께서 오늘도 또 오시

기를 바랜 나의 욕심이 미안스러웠다.

즐거운 캐롤송을 듣고 온 가족이 우유를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늦게 까지 놀았다.

'내일은 꼭 전해 줘야지' 생각을 하며 일기를 쓰고 자리에 누웠다.

26일 새벽

5시 30분을 알리는 쾌종소리에 얼른 일어나 옷을 갈아 입고 선물을 들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추웠지만 우유 배달부 아저씨께서 오시나, 안오시나 마음을 조이며 추위도 잊었다.

6시가 되었나 보다.

자전거 우유 배달부 아저씨께서 오셨다. 얼른 선물을 우유가 담긴 통속에 넣고 주머니에 우유 6개를 받아 집으로 들어 왔다.

다음날 우유 주머니속에 쪽지가 들어있었다. '정말 고맙다'라고 써 있었다.

우유를 마시며 살그머니 서랍 제일 아래쪽 공책속에 넣어 두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하루도 걱정하지 않고 사계절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 배달을 하시는 모든 우유 배달부 아저씨들께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우유 배달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추위에도 저희들은 항상 아저씨를 생각하며 우유를 마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드셔도 저희들을 항상 잊지 마세요. 라고 우유 배달부 아저씨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기작

고마운 우유

전남 장흥읍 장흥국민학교
4학년 3반 허 준 호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중간놀이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우유차가 오지 않았으니…'

우유당번인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유리창 너머로 우유차가 들어올 길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었다.

함박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이 하얀 나라가 되어 버렸던 작년 겨울방학이었다.

"아빠 오늘 아침도 우유가 안오려나 봐요."

"글쎄다. 연 사흘씩이나 아무 소식 없이 우유 배달이 되지 않은 걸 보니 배달아줌마가 많이 아프기라도 했나 보구나."

형과 함께 우유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아빠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며 혹시나 하고 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되어도 우유아줌마는 소식이 없었다.

"아빠 오늘도 우유 안오면 가게에서 사주세요. 하루에 3컵씩 마시다가 사흘이나 우유를 못마셔 속이 갑갑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리광부리듯이 말씀드리자

"그렇게 먹고서도 싫증이 안나니?

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유만 보이면 또 마시려고 하더라. 그토록 우유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젖소가 네 엄마인 모양이야."

하며 껄껄껄 웃으셨다.

아빠가 놀리셔도 나는 여러차례 들어온 말이라 빙그레 웃으며 아빠의 말씀을 받아넘겼다.

"태어난지 2달 되면서부터 마시기 시작하여 10년동안을 날마다 마셨으니 참맛을 알게 아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맛있는걸요."

"그러니까 젖소 아들이라고 하지. 하긴 엄마가 직장에 나가고 안계신데 우유가 없었더라면 어찌 했겠니? 넌 우유 덕분에 이렇게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자란거야. 같은반 아이들보다 1살 아래 인데도 지금까지 쭉 임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유를 마셔서 성격이 원만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겠니?"

"맞아요 우유는 정말 좋은가봐요. 지난 체질검사때 보니 우리반에서 충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저 뿐이던걸요. 선생님께서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런거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젖소엄마에게 정말 고맙다고 해야겠다."

아빠와 한참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이 방문을 열고

"아빠 우유 안사주시겠어요?"

하며 우리 곁으로 왔다. 아빠는 웃으며

"역시 우유대장들이라 다르구나. 다른것도 아닌 너희들에게 더없이 고마운 최고의 자연 건강 식품인 우유를 사 달라는데 마다하겠니?"

하시며 2000원을 주셨다.

기쁨에 넘쳐 문을 열고 가게로 뛰어갔다.

"우유 주세요. 우유요!"

큰 소리로 외치자 가게아저씨는 웃으며

"이 날시에 차가 오겠니? 길이 미끄러워 회사 차가 사흘째 오지 못했단다. 고개를 넘지 못해서 일게다."

하시는 것이었다.

우유아줌마가 아프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화가났다.

가게에서 나오며 발 밑에 쌓인 눈을 발로 툭 찼다. 그래도 화가풀리지 않아 계속 눈을 차댔다. 발이 시러웠다. 그러나 꽁꽁 언것이 발끝만은 아니었다.

그때였다.

"준호야 우유차 왔어 어서 가자."

하며 나처럼 우유를 좋아하고 몸이 튼튼해 우유당번이 된 승욱이가 내 등을 두드렸다."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승욱이와 함께 양호실에 가서 우리반 우유 상자를 가져 왔다.

작년 겨울 우유가 없어 못마셨던 서운함을 생각하며 입안에 한모금씩 머금고 오물오물 씹어 먹듯이 마셨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인지 어느 때보다 더 맛이 있었다.

우유를 마시고 나자 나는 힘이 솟구치는것 같았다. 빈 우유곽을 상자에 넣으며 난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를 도와 나를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게 해준 고마운 우유야!

언제까지나 나의 정다운 친구로 내 곁에 있어줘.

<표 2> 성인 1일당 한국인 평균 영양섭취량과 영양권장량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g) (동물성)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	비타민B_1 (mg)	비타민B_2 (mg)
영양섭취량(84)	1901	69.3(26.4)	481	13.9	1681	1.2	1.0
영양권장량	2250	70	600	14	2475	1.2	1.4
우유 1ℓ의 영양량	610	32.9	1190	0.5	590	0.38	1.62

註 : 영양권장량은 남·여 권장량을 평균한 것임.